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백조의 호수」 상징 연구

- C. G. Jung의 원형이론을 중심으로 -*

노 영 재**

I. 서론	V. 결론
II. 분석심리학과 원형이론	참고문헌
III. 「백조의 호수」의 제작 및 배경	Abstract
IV. 「백조의 호수」 속 원형과 상징	

I. 서론

본 연구는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발레 「백조의 호수」에 내재된 원형과 상징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마리우스 프티파(Marius Petipa)의 「백조의 호수」, 매튜 본(Matthew Bourne)의 「백조의 호수」, 대런 아로노프스키(Darren Aronofsky)의 영화 「블랙 스완」으로,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로 꾸준히 제작되어온 「백조의 호수」의 모티프에 주목하여 춤으로 표현되는 원형적 심상의 의미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비평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모티프는 이야기의 최소 단위, 즉 ‘화소(話素)’로 작품의 주제를 구축하고 통일감을 주는 중요 단위이다. 현재는 신화비평에서 거론하는 원형적 심상과 예술에서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징도 포함한다. 원형과 상징 연구는 인간 정신의 통시적 유형, 공통적인 근본 양식들을 작품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융의 심리학은 원형의 개념과 특징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술, 인문학, 문화연구 분야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백조의 호수」는 1895년 러시아 황실 발레를 부흥시킨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프 이바노프(Lev Ivanov)의 안무를 바탕으로 한다. 원래 이 작품은 차이코프스키(Pyotr I. Tchaikovsky)의 음악, 다수의 백조 설화¹⁾를 참조한 대본을 바탕으로 1875년 줄리어스 라이징어(Julius Reisinger)에 의해 발레로 제작되었으나 완전하지 못한 안무로 인해 흥행에는 실패하여 주목을 받지 못했다. 프티파-이바노프의 「백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295).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특별연구원, balletyj@gmail.com

1) 「백조의 호수」 스토리의 기원은 오늘날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1875년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으로 먼저 탄생된 후 안무가 이루어진 이 작품은 음악 작곡과 발레 대본 완성 과정에서 독일, 러시아 등 다양한 백조(새) 설화들이 영감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의 호수」는 초연의 미흡한 점을 전면적으로 각색하여 탄탄한 스토리와 안무로 고전주의 발레의 정수를 담아내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고전발레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고 있다.

「백조의 호수」는 이후 고전발레로서뿐만 아니라 현대춤의 어휘로 많은 안무가가 재탄생시켰고, 발레 속 백조의 이미지는 광고, 애니메이션, 영화 등 대중문화에까지 그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 특히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는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시대와 인물의 성격함에 변화를 줌으로써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대런 아로노프스키의 영화 「블랙 스완」은 「백조의 호수」 공연을 소재로 발레리나의 심리를 깊이 있게 묘사하여 호평을 받았다. 각 작품들은 새로운 해석, 대중적 소재로 각광을 받기도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고전 「백조의 호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작품이기도 하다. 고전과의 연관을 살펴보면, 매튜 본은 고전 작품 속 1막, 3막에 나타나는 왕자와 어머니의 갈등이나, 백조 원형의 상징적 의미를 폭넓게 탐구하여 작품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영화 「블랙 스완」은 고전 작품의 하이라이트인 백조/흑조 이분법에서 파생되는 심리적 갈등을 깊이 있게 그려내었다. 이는 작품 속 선/악의 매커니즘을 직업 발레단과 인간 삶의 양면적 모습으로까지 확대하여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확장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발레의 미학적 측면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분석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백조의 호수」 모티프가 산출하는 상징적 표현이 지닌 정신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창작자에게는 영감을, 감상자에게는 공감과 감동을 끊임없이 가져다주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작용은 단지 미적 형식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미처 의식되지 못한 인간 내면이 활성화되는 경험에서도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스위스 정신의학자 융은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함께 20세기 정신분석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중요한 인물이다. 인간 정신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어 무의식의 존재를 깊이 있게 다룬 점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와 견해를 같이 하나 무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인과론적 관점에서 무의식을 성적인 억압의 저장소라 여긴 프로이트와는 달리 융은 목적론적 관점에서 무의식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강조한다. 융의 분석심리학은 인간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의 두 영역으로 볼 때 의식보다 가늠할 수 없이 광대한 무의식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가능한 한 의식화함으로써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 즉 전체적이고 조화로운 인간상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미지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 융은 개인적 차원에서 억압된 개인적 무의식(personal unconscious)과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적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이라는 두 가지 층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융은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원형(archetype)’이라 하였다. 원형은 전 인류 공통의 기억이나 이미지의 모티프가 되는 것으로 인간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이라 할 수 있다.²⁾ 다시 말하면 원형은 구체적인 형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미리 형식을 만드는 능력’으로 인류의 근원적인 행동유형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관념 형식의 가능성이다.³⁾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예술은 바로 이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이 여러 가지 예술적 표현 매체를 통해 상징적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이때 예술가는 원형을 그 시대의 예술적 형식으로 전달하는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감상자는 이를 통해 시공을 초월한 감동과 공감을 얻게 된다.

2) 이부영(2011),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심성론』(서울: 일조각), p.115.

3) 앞의 책, pp.118-119.

분석심리학과 예술 관련 논문은 시각예술과 문학에서 많이 시행되었으며, 주로 무의식의 창조성에 기인하는 창작 활동의 치유적 효과에 집중하였다. 분석심리학과 무용에 관한 선행연구⁴⁾로는 김윤정의 “Jung의 관점에서 본 Bausch의 예술세계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나일화는 낭만발레 「지젤」을 대상으로 융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본 무용예술의 극적 구조를 연구한 바가 있다. 정의숙, 변혁은 영화 「그녀에게」 속 피나 바우쉬의 춤을 중심으로 영화 속에서 춤이 갖는 몸 담론을 분석심리학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백조의 호수」는 작품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주로 미학과 역사적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중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본 연구의 주제 및 대상과 관련 있는 연구⁵⁾를 살펴보면, 김윤미와 황희정은 프티파 버전 「백조의 호수」를 재안무한 작품들의 정체성을 논의하였고, 안나용 그리고 조기숙과 한혜주는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를 문화코드 혹은 상호텍스트성 이론으로 살펴보았으며, 최은지와 이혜준은 「블랙 스완」의 예술적 담론을 연구한 바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 볼 때 현재까지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춤을 논의한 연구는 무의식과 관련한 안무가의 창의성 연구, 혹은 낭만주의 발레한 작품에 국한하거나 영화 속 신체 담론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후자의 「백조의 호수」에 관한 연구들은 고전발레에서 재안무의 의미를 고찰하거나 한 작품을 대상으로 심리, 역사, 문학적 텍스트간 상호관련성을 연구하고, 스토리콘텐츠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개별 작품의 미학적 분석이나 텍스트 분석이 아닌 통시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즉, 시대와 장르가 다른 복수의 「백조의 호수」속 주요 원형상을 통해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무용예술이 지닌 원초적 의미를 살펴본다는 데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지닌다. 작품이 지닌 보편적 무의식의 세계는 시대정신과 결부된 예술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게 하고, 이는 감상자와 평가자의 공감, 감동, 지지를 통해 작품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인간 내면과의 긴밀한 연관을 시사하며, 현대인들에게 예술 감상을 통해 영혼의 울림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변환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레의 원형과 상징이 지닌 심리성 탐구를 통해 무용예술이 지닌 인문학적 가치를 확대하고, 무용으로써 정신적 삶의 의미를 조명해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본문 첫 장에서는 「백조의 호수」의 원형과 상징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융의 원형이론과 분석심리학에서 보는 예술의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백조의 호수」에 대한 배경 연구로 작품의 탄생 비화와 대본을 살펴봄으로써 「백조의 호수」 혹은 백조 관련 예술작품이 지니는 영감의 원천 및 상징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각 작품에서 드러나는 「백조의 호수」속 원형과 상징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고찰하여 어떤 원형적 요소가 심리적 교감과 소통을 이루어내는지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단행본, 학위 및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연구와 공연 및 영화 영상자료⁶⁾ 분석이 병행된다.

4) 김윤정(1993), Jung의 관점에서 본 Bausch의 예술세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일화(2007), 융(C. G. Jung)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본 무용예술의 극적구조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0, pp.119-144; 정의숙, 변혁(2011), 영화 속에서 춤이 갖는 몸 담론, 『무용예술학연구』 32, pp.127-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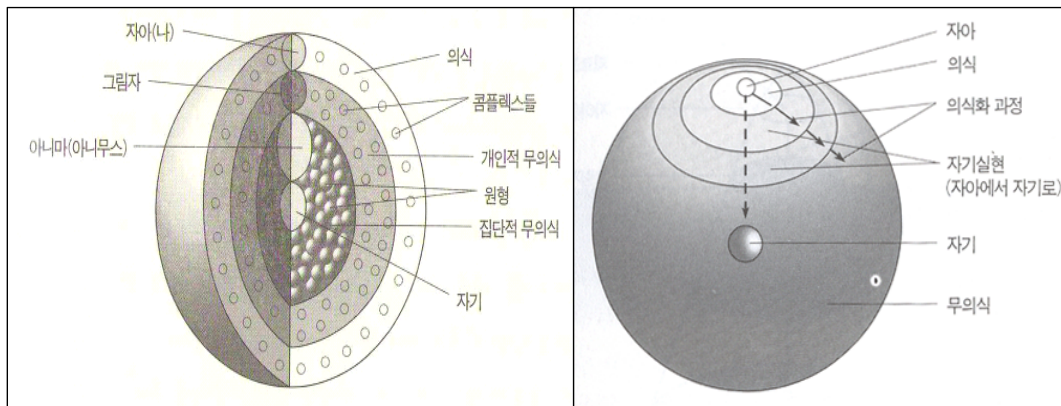
5) 김윤미, 황희정(2011), 춤의 정체성 논의와 실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1, pp.1-16; 안나용(2009), 매튜 본 〈백조의 호수〉의 문화코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6, pp.107-143; 조기숙, 한혜주(2009),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1, pp.278-294; 최은지, 이혜준(2016), 영화 〈블랙 스완〉의 예술적 담론 분석, 『한국무용학회지』 16(1), pp.13-24.

6) 프티파-이바노프 버전은 전 세계 유명 발레단들이 지속적으로 재안무하여왔으나 1895년 역사적인 초연은 마린스키 발레단에 의해 무대화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마린스키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DVD 영상을 참고하며,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와 영화 「블랙 스완」은 공식적으로 출시된 DVD 원본을 이용한다.

II. 분석심리학과 원형이론

1. 분석심리학에서 보는 정신의 구조

무의식으로 작용하는 원형의 특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심리학이 보는 인간 정신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심리학에서 의미하는 인간의 마음은 심연의 바다와도 같이 심층적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인지하는 의식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무의식까지 포괄한 ‘전체정신’을 논한다는 점에서 그러하거나 “무의식은 실로 무의식적이다”라는 융의 말처럼 무의식의 크기와 깊이는 규정된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분석심리학은 의식과 무의식 간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고,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전체정신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전체정신의 심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분석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의 편의상 구의 모형으로 도식화하여 정신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있으며 자기실현이라는 의식화 과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마음의 구조(좌)⁷⁾와 자기실현의 과정(우)⁸⁾

〈그림 1〉에서처럼 ‘자아’를 핵으로 하는 의식은 전체정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체의 피부처럼 표면에 불과하며,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전체정신의 핵은 ‘자기’이다. 의식과 무의식에는 강렬한 정감인 콤플렉스들이 존재하고, 의식과 인접한 아래에는 개인적 무의식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집단적 무의식 층이 존재한다. 개인적 무의식에는 그림자가 있으며 집단적 무의식에는 아니마/아니무스 층이 내재해 있다. 의식과 무의식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7) 이부영(1999), 『분석심리학의 탐구 1: 그림자』(서울: 한길사), p.35.

8) 앞의 책, p.39.

〈표 1〉 정신의 구조를 이루는 주요 개념

주요 개념	성격과 특징
페르조나(Persona)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된 용어로, 인간이 외부와 접촉하는 외적 인격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할과 같이 사회생활에 있어 필요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집단이 요구하는 정신의 모습이자 가상이다. 따라서 페르조나와의 맹목적 동일시는 자기 내면과의 접촉 기회를 상실하는 위험에 빠지게 하므로 반드시 자아와 구별되어야 한다. 페르조나는 외부 혹은 의식 세계와 관계된 개념이지만 사회 속 적응에서 성공과 실패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사회적 원형’ 혹은 ‘규범(conformity) 원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⁹⁾
그림자(Shadow)	자아의 어두운 면이자 열등한 인격이다. 의식의 바로 뒷면에 있으며 주로 개인적 무의식을 나타내지만 가정이나 사회 등 무리를 이루는 집단 속에서 작동할 때 파괴적인 감정적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형상을 띤다.
아니마(Anima) 아니무스(Animus)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내적 인격으로 외적 인격인 페르조나와 대극을 이룬다. 아니마는 남성 속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 속 남성성을 의미하며, 남성과 여성이 자기 실현의 길로 갈 때 반드시 의식화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원형으로서의 아니마, 아니무스는 주로 이성과의 사랑과 같이 투사로 경험되거나 예술가의 작품으로 형상화된다.
자기(Self)	자기 원형을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한 전체정신의 중심핵으로, 인간을 자기실현에 이르게끔 조절하고 진행하는 근원적인 가능성이다.

2. 원형과 집단적 무의식

인간의 심층을 다루는 심리학에서 융과 프로이트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의식의 가설에서 드러난다. 개인의 억압된 내용만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다룬 프로이트와는 달리 융은 무의식을 개인적 차원과 그 아래의 집단적 차원, 두 층위로 보며 무의식의 영역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개인적 무의식이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서 잊혀진 표면적 무의식이라 한다면 이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양식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적 무의식 층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은 ‘집단적(collective)’이라는 수식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 개인적 성질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심층심리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논의함에 있어 무의식은 중요한 요소이다. 분석심리학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작품이 아니라 예술가의 창조적 과정과 작품이 드러내는 상징적 현상에 있으며, 이는 예술가 개인의 정신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 여긴다. 다시 말하면 프로이트와 같이 예술작품을 예술가의 개인사나 무의식의 욕구 충족과 같은 개인적 무의식의 영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집단적 무의식과 예술의 관계에 더 주목한 것이다. 융은 예술작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작가의 의지가 많이 개입되어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가의 의지가 덜 개입된 것인데, 후자의 경우 작가들은 집단적 무의식에 있는 원형을 체험하고, 창조적인 자율적 콤플렉스가 작용하여 창작을 하는 것이다.¹⁰⁾ 예술가를 창작으로 이끄는 무의식의 자율적 콤플렉스는 상징적 모습을 통해 작품에 나타나며 사람들은 이러한 예술적 상징을 통해 무의식과 접촉하고 심연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예술작품을 분석심리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원형과 집단적 무의식의 차원을 들여다보는

9) A. Stevens(2016), *Living Archetypes*(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63.

10) 김성민(2017), 분석심리학과 문화: 예술에 대한 프로이트와 융의 태도 차이, 『신학과 실천』 53, p.217.

것이어야 한다. 원형과 집단적 무의식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원형은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며, 이미지(image)와 정감(emotion)이 결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태적 측면뿐 아니라 강렬한 감정을 수반하는 정동적 에너지를 지닌 심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가 창작의 원동력으로 삼는 ‘원형 체험’이라는 독특한 경험도 바로 이 원형의 심리학적 작용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 정신의 근원적 핵으로 존재하는 원형은 태어날 때 이미 부여되어있는 선형적 조건이자 행동유형이며 다음과 같이 오랜 시간 축적된 인류 공통의 정신적 조건과 같다.

인류가 죽음에 대하여, 사랑과 미움에 대하여, 어린이에 대하여, 또한 노인에 대하여, 위대한 부모의 힘에 대하여, 어둠과 광명에 대하여, 크나큰 조물주의 힘과 현자의 지혜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 온 모든 것, 그 태초로부터의 체험의 집전이 바로 원형이다.¹¹⁾

바로 이러한 보편성과 근원성은 시간과 공간,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형이 지닌 에너지의 핵심적 성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형은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명쾌히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원형이란 그 자체로서는 형상 없이 비어있는 형태적 요소이며 선형적으로 주어진, 여러 관념 유형을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분석심리학의 기본 전제는 ‘대극(opposites)’으로, 인간 정신을 포함한 모든 세계는 양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을 인식하고 조화롭게 통합하여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따라서 원형 그 자체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 혹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함께 지니는 대극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근원적이며 보이지 않는 의식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원형은 상징으로 의식화되며, 하나의 이미지나 상으로 나타날 때 다양한 성질을 인식할 수 있다. 구체적 형상을 보이는 바로 이 원형상은 꿈, 민담, 신화, 예술작품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인간은 ‘비어있는’ 원형의 작용을 현실에서 체험하게 된다.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한 이러한 원형들은 개인적 무의식의 차원이 아닌 집단적 무의식으로 활동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자기실현의 과정은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를 의식화하는 단계를 밟는다. 이때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는 모든 원형의 대극적 성질이 초래하는 갈등을 통합시킴으로써 인간이 그 사람 자신으로 살게 하는 새로운 의식성을 탄생시킨다. <표 1>에서 보듯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그림자, 아니마/아니무스, 자기는 주요 원형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원형은 이들과 함께 혹은 이들의 내용과 중복되고 결합하여 셀 수 없이 무한하다. 집단적 무의식을 이루는 원형은 근원적 조건의 여러 유형적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민담, 신화, 예술작품 등을 통해 구체적 상(image)으로 경험된다. 융이 거론한 대표적인 원형의 예로는 어린이(child) 원형, 영웅(hero) 원형, 처녀(maid) 원형, 트릭스터(trickster) 원형, 모성(mother) 원형, 부성(father) 원형, 노현자(wise old man) 원형 등이 있다.

11) 이부영(2011), p.115.

III. 「백조의 호수」의 제작 및 배경

「백조의 호수」는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로부터 시작되었다. 안무에 앞서 볼쇼이 극장장 블라디미르 베기체프(Vladimir P. Begichev)에게 작곡을 의뢰받은 차이코프스키는 당시 인기가 높은 황실 발레를 주시하며 음악가로서 자신의 명성에 걸맞은 발레 음악을 만들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백조의 호수」는 차이코프스키의 첫 발레 음악이었으며, 이 경험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인형」까지 이어져 마침내 그의 3대 발레 음악이 완성되었다.

당시 많은 발레의 대본이 민담과 동화를 바탕으로 쓰였는데, 이 「백조의 호수」 대본은 기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오늘날에는 하나의 민담이 아닌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발단은 최초로 제작 작업에 뛰어든 차이코프스키의 아이디어를 모티프로 한다. 작곡을 의뢰받을 당시 차이코프스키는 자신이 몇 년 전 조카들을 위해 사적으로 작곡하였던 작은 발레 작품을 떠올렸다. 그것은 독일 작가 요한 무제우스(Johann Karl August Musäus)의 민담 『잃어버린 베일, *The Stolen Veil*』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백조의 주제 선율이 오늘날 「백조의 호수」 2막과 흡사하다. 차이코프스키는 이 주제를 발전시켜 환상적인 발레작품을 만들기 원했고 당시 총감독이었던 바실리 겔처(Vasily Geltser)가 차이코프스키의 의견을 수용하며 구체적인 발레 대본 제작에 들어갔다. 실제 대본은 무제우스의 모티프 외에 당시 인기가 높았던 여러 가지 환상 동화가 섞이게 되는데, 19세기 초 공연된 낭만발레 「요정의 호수」, 러시아 민담인 『하얀 오리, *The White Duck*』와 더불어 여러 신화와 민담에 존재하는 백조 주제가 혼합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부분에서 「백조의 호수」 대본과 심리적 요소를 연결해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화와 민담은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경험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백조 처녀 원형(*swan maiden*)이다. 백조 처녀는 당시 유럽 민담에서 매우 흔한 주제였다. 비록 여성은 아니지만 그림 형제의 유명한 민담 『여섯 마리 백조』는 백조로 변한 여섯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백조 처녀는 특별히 더 흔한 주제였다. 독일 민담에는 『세 마리 백조』가 있고 스웨덴 민담에는 『백조 처녀』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19세기 오스트레일리아 민속학자 조셉 제이콥스(Joseph Jacobs)는 백조 처녀에 관한 수많은 유럽 민담을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민담에서 백조는 때때로 비슷한 종류의 새로 치환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백조 혹은 새의 형태를 띤 여성의 이야기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동양에서는 도교나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백조가 날개옷을 입은 선녀나 신령으로 나타나며 해당 문화권의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담인 『선녀와 나무꾼』 역시 백조 처녀 민담의 유화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모티프 중 하나로 여겨지는 백조 처녀 민담의 기본 골격은 인간의 변신(*metamorphosis*) 즉, 일반적으로 새(백조, 거위, 오리 등)로 변하는 여성에 관한 것이다.¹²⁾ 하늘과 땅,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존재인 새는 보편적으로 세계숨(*breath of the world*) 혹은 물질에 숨은 세계혼(*world soul*)으로서의 심혼을 상징한다.¹³⁾ 특히 백조의 깨끗한 이미지는 고귀하고 신성한 존재로 비유되고, 때론 천상의 존재와 인간의 결합을 그린다는 점에서 ‘금기와 위반’¹⁴⁾을 상징하기도

12) C. W. Beaumont(1952), *The Ballet Called Swan Lake*(New York: Dance Books), p.36.

13)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2010), *The Book of Symbols*(Cologne: Taschen), p.238.

한다. 변신, 금기, 위반 등은 한 인격이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는 ‘재탄생’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티프라 할 수 있다. 발레의 대본은 어느 특정 민담을 차용하기 보다는 수많은 유화로 재탄생된 백조 처녀 민담과 신화의 기본적이며 공통적인 모티프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조의 호수」 대본은 작품의 원형과 상징을 논의하는 출발점이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백조 처녀는 전형적인 ‘처녀 원형’의 일종이며, 이는 모성과 더불어 재탄생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여성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기 실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아나미 원형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조의 호수」는 바로 이 여성성을 둘러싼 아나미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오늘날 「백조의 호수」를 영원한 클래식으로 만든 안무가 프티파는 차이코프스키 사후 그의 대본과 음악 구성에 각색을 더하여 안무를 완성하였다. 그의 조수 이바노프는 2막과 4막 백조 군무에 순수성을 더하여 순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였으며, 프티파는 3막의 대본을 각색하여 악마 로트바르트와 흑조의 어두운 이면을 부각함으로써 왕자의 심리적 혼란을 극적으로 묘사하였다. 프티파의 안무는 백조 처녀 원형이 지닌 여성성의 대극적 면모를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시각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작품의 성공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원작의 현대적 활용을 볼 때, 20세기 매튜 본의 작품은 원작의 대본과 음악을 바탕으로 동일한 플롯과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시간적 배경을 현대로 가져오으로써 원작이 지닌 동화적 요소는 희석되었다. 또한, 왕자, 백조, 왕비 등 원작에 등장하는 배역이 극 전개의 주축을 이루지만 백조의 성별을 바꾸고, 비서, 여자친구, 낯선 남자 등 새로운 배역이나 대중적 요소를 가미하여 현대 왕실과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원작보다는 왕자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어 있다는 점이다. 매튜 본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로 ‘결핍된 사람(needy person)’이 작품의 핵심이라 말한다.¹⁵⁾ 작품은 이러한 왕자의 심리를 강조하기 위해 실제 많은 역사 속 왕자의 불안과 광기가 참조되어 원작보다 복잡한 왕자의 고뇌를 담았다.¹⁶⁾ 왕자가 갈망하는 백조는 이처럼 왕자의 불안정한 내면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환상을 넘나들며 굶주린 왕자의 이상과 사랑의 상징이 된다.

이어지는 21세기 영화 「블랙 스완」은 극 중 뉴욕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을 둘러싼 에피소드를 통해 프리마 발레리나의 심리를 다룬 스릴러물이다. 이때 영화 속 「백조의 호수」는 원작의 대본과 음악을 모티프로 하며, 영화는 특히 프티파 안무 중 스펙터클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백조/흑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스토옙스키(Fyodor M. Dostoevsky)의 소설 『분신, *The Double*』 속 도플갱어처럼 인간 의 변신을 그린 영화 제작을 염두에 두고 있던 아로노프스키는 발레를 보고 난 후 주저 없이 백조의 변신

14) 금기와 위반은 백조 처녀 민담이 지닌 보편적인 주제로 비밀에 대해 금기를 어기고 약속을 파기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잘못된 사랑의 맹세로 마법을 풀지 못하는 「백조의 호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백조 기사의 정체성을 밝히려다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는 바그너(Wilhelm R. Wagner)의 「로엔그린, *Lohengrin*」, 천상의 존재를 지상에 매어 놓기 위해 날개옷을 감추는 『선녀와 나무꾼』 등 백조 처녀 민담이 골자로 하는 금기와 위반은 신성과 세속의 갈등을 묘사하고 신성을 향한 세속적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염원을 담고 있기에 신화와 예술에서 다양한 문화적 해석이 더해져 극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주요 모티프가 된다.

15) A. Macaulay(1999), *Matthew Bourne and His Adventures in Motion Pictures*(London and New York: Faber and Faber), p.221.

16) 백조의 원형적 심상과 관련하여, 매튜 본은 특히 「로엔그린」의 백조에 집착한 바바리아 루트비히 2세(Ludwig II)를 언급하며 백조 기사의 환상에 빠진 루트비히의 광기가 「백조의 호수」 속 왕자를 완성하는 데 영감을 주었다고도 말한다. Ibid., p.227.

을 자신의 영화에 적합한 주제로 선택하였다.¹⁷⁾ 영화의 시놉시스는 발레의 현대적 재해석이란 설정 아래 1인 2역을 하이라이트로 하는 「백조의 호수」를 무대화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겪는 분열을 그리고 있다. 영화는 발레 작품 자체보다는 백조 연기에만 뛰어난 주인공이 상반된 흑조의 역할을 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발레단이라는 현대 집단 속에서 밀도 있게 조명한다. 영화의 주요 모티프인 ‘두 역할’은 백조 원형의 대극적 성질을 나타냄과 동시에 현실 속 주인공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 백조 민담의 원형적 주제인 ‘변신’은 이 두 차원에서 작용하여 풍부한 극적 표현과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IV. 「백조의 호수」 속 원형과 상징

본 장에서 논의될 세 작품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 작품의 정보

	작 품 명	제 작 자	제작년도	장 르	비 고
1	백조의 호수	Marius Petipa & Lev Ivanov	1895년	고전발레	
2	백조의 호수	Matthew Bourne	1995년	현 대 춤	로렌스 올리비에상, 토니상 등 다수 수상
3	블랙 스완	Darren Aronofsky	2010년	영 화	- 볼쇼이 발레의 「백조의 호수」 참조 - Benjamin Millepied 안무 및 출연 (New York City Ballet 수석무용수 및 Paris Opera Ballet 예술감독 역임) -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수상

1. 애니메이션 그리고 자기실현의 여정: 마리우스 프티파의 「백조의 호수」

지그프리드와 오데트가 등장하는 프티파의 「백조의 호수」는 흔히 송고한 사랑 이야기로 대변된다. 악마의 마법에 걸린 공주를 구출하려는 왕자의 노력은 선과 악의 극적인 대결을 보여주고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인간의 처절한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융 심리학자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 (Marie-Louise von Franz)는 민담은 집단적 무의식의 보고이며 그 속에 인간의 개성화 과정이 녹아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형적 기본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정신의 기본 골격과도 같으며 전체 속의 가장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핵과 같다고 하였다.¹⁸⁾ 본 연구는 백조 처녀와 관련된 복수의 민담 모티프를 바탕으로 제작된 「백조의 호수」 역시 다양한 원형적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왕자의 여정을 자기실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은 민담의 모티프 분석과 같이 언어적 텍스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작품이 집중하는 안무의 특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춤 원형상들의 심리적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17) J. Hiscock(2010, December 30), *Black Swan: Dancing on the edge of sanity*, The Telegraph, <<https://www.telegraph.co.uk/culture/film/filmmakersonfilm/8232025/Dancing-on-the-edge-of-sanity.html>, 2019. 10. 10.>.

18) M. L. von Franz(1996),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revised edition)*(Boston and London: Shambhala), p.25.

「백조의 호수」에서 가장 먼저 대면하는 원형적 요소는 어머니, 즉 모성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발단은 왕비로 시작한다. 주인공 지그프리트는 성인식 파티를 앞둔 상태로 미숙한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아직은 친구들과의 사교와 유희를 선호하며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현재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다. 이때 지그프리트의 생각을 지배하는 인물로 왕비, 즉 어머니가 상징적 역할을 한다. 가볍고 유쾌한 왕자의 행동에 반해 무거운 드레스를 끌며 근엄한 자태를 보이는 왕비는 현재 왕자에게 유일한 여자이자 거대한 존재이다. 경고와 통제의 제스처를 전달하고 아들의 성인식과 더불어 아들의 파티너를 만드는 약혼식을 관장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과시한다.

어머니의 통제를 벗어나 왕자는 성 밖으로 사냥을 나간다. 사냥은 일탈의 형태라 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엄한 어머니’라는 모성의 영역을 벗어나는 독립적 행위이며 무의식으로 향한 여정의 출발이 된다. 왕자가 사냥을 떠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홀로 백조를 만나게 되는 밤, 차가운 달빛이 드리워진 호수는 왕자가 미지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는 곳, 즉 무의식의 상징이다. 융은 그의 저서 『변환의 상징, *Symbol of Transformation*』에서 무의식의 상징으로서의 물을 모성적 의미로 확충하고 있다.¹⁹⁾ 꿈과 환상에서 바다나 큰 물은 무의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물이 생명의 원천임과 동시에 죽음을 수용하는 곳이며, 죽음은 곧 재탄생의 가능성으로 열려있다는 점에서 모성적 성질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신화나 민담에서 흔히 등장하는 주인공의 ‘밤바다 항해’ 주제나 새로운 탄생의 맥락에서 물은 ‘정화’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것 또한 물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무의식성을 드러낸다. 프티파의 작품에서 밤이면 백조가 깨어나 활성화되는 호숫가 장면이 두 막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호숫가로의 여정은 의식 너머의 불확실한 세상으로 가는 무의식으로서의 탐험이며 동시에 모성으로서의 상징적 회귀²⁰⁾를 통해 재탄생으로 향하는 과정의 의례라 볼 수 있다.

현실의 궁정과 달리 주술사와 백조가 등장하는 2막과 4막은 무의식의 세계이다. 남성의 어두운 무의식 속 여성성인 아니마는 ‘기분’ 혹은 ‘정동’으로 나타나는데, 아니마 원형은 감상적 기분, 우수, 음산한 예감, 허무함, 쓸쓸함에서 폭풍 같은 분노, 격렬한 열정, 대 환희의 감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현란한 성질을 포함한다.²¹⁾ 오데트를 포함한 백조 군무는 바로 이 아니마 원형의 기분을 형상화한 장면으로 볼 수 있으며 의식 세계의 왕자와는 성질이 다른 그의 내적 인격의 모습인 것이다. 어머니가 아닌 새로운 여성과의 만남은 왕자의 한 단계 성숙을 암시한다. 태어나 제일 처음 만나고 인식하는 여성이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나 대면하는 왕자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는 먼저 백조 오데트에게 투사된다. 악마 로트바르트의 마법으로 밤에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변하는 오데트는 진정한 사랑만이 자신을 구원해줄 것이라 말한다. 여기서 ‘진정한 사랑’은 악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마법을 풀게 하며 이로써 지그프리트와 오데트가 하나됨을 의미한다. 자기실현의 여정에서 남성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니마 통합의 단계인 것이다.

프티파의 「백조의 호수」는 누가 주인공인가? 제목에서 쉽게 알 수 있듯 서사의 중심은 오데트이다. 앞 장에서 논의하였듯이, 대본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 백조 처녀 모티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데트

19) C. G. Jung(1985), 『영웅과 어머니 원형』, 용저작번역위원회(역)(서울: 솔출판사, 2006), pp.87-91.

20) 프로이트는 어머니와의 결합을 ‘근친상간’이라는 생물학적인 욕망으로 바라보았지만 융은 보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실제적인 성적 욕구가 아닌 현실의 어려움에 봉착한 인간이 어머니에게로 되돌아가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라 보았다. 이 근친상간에 대한 견해차는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융이 프로이트와 결별하게 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21) 이부영(2001), 『분석심리학의 탐구 2: 아니마와 아니무스』(서울: 한길사), p.65.

는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으로 발레, 특히 고전발레는 ‘여성의 예술’²²⁾이라는 점에 주목해보면, 「지젤」, 「라 실피드」, 「코펠리아」, 「라 바야데르」,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수많은 클래식 발레의 제목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나 역할로 나타난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역할들은 다양한 여성의 유형이나 여성성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조의 호수」는 바로 이 ‘아니마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이 보다 타당해진다. 원작 「백조의 호수」는 흔히 선과 악으로 대변되는 오데트와 오딜의 이분법에 초점을 맞추며 스펙터클을 만들어낸다. 백조와 흑조, 두 역할만을 놓고 볼 때 하나는 다른 하나의 그림자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전체 작품의 흐름에서 오데트와 오딜은 바로 아니마 원형의 이중성을 의미한다. 결국 지그프리트는 호숫가에서 진정한 사랑을 ‘자발적으로’ 맹세하였음에도 부정적 아니마인 흑조에게 사로잡혀 왕국은 어둠에 잠기고 긍정적인 내면의 아니마 상인 백조와 멀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아니마와의 단절이자 내면과의 통합에 실패한 것이다. 「백조의 호수」 초연의 결말은 비극이지만 한 세기를 거치며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혹은 안무가의 해석에 따라 행복한 결말을 그리는 재안무 버전도 많다.²³⁾ 고전의 구조와 전개는 유사하지만 피날레에 다른 결말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이한 결말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기도 한다. 「백조의 호수」는 바로 아니마 원형의 대면과 내적 인격의 통합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으며, 통합의 유보든 성공이든,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영원한 소년(Puer Aeternus):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1995년 영국 새들러스 웰스 극장에서 초연된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는 고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남성 백조를 기용하여 성 역할의 전복을 보여줌으로써 초연 당시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다수의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였으며 영국 웨스트엔드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최장기 공연된 무용작품으로 기록되며 현재에도 세계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선 논의에서 프티파의 「백조의 호수」가 백조/흑조의 이분법으로 아니마 원형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남성의 아니마 통합 문제에 집중하였다면, 매튜 본의 작품에서는 어머니의 역할과 비중이 주목하고자 한다. 프티파의 버전에서 왕비의 역할은 ‘엄한 어머니’이지만 1막과 3막 긍정 장면이 인상적인 캐릭터로 잠시 등장할 뿐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는 현대 왕실을 배경으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모성 원형과 이를 토대로 한 모성 콤플렉스이다. 융 심리학에서 콤플렉스는 개인적 무의식의 영역으로 ‘감정적으로 강조된 심리적 내용’이며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띠고 행동하여 직접적으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반면 원형은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적 무의식의 영역으로 그 자체로는 텅 빈 그릇과 같은 것이며 선천적으로 주어질 관념 유형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이라 하였다. 따라서 원형이 일종의 기본적인 형태나 틀이라면 이 원형을 핵으로 하여 여러 연상을 이루며 콤플렉스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모성 콤플렉스는 모성

22) 낭만주의시대부터 이어져 온 발레의 여성 중심적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20세기 후반 이후 사회학적 혹은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여성의 정형화, 대상화의 문제로 재조명되어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23) 프티파의 원전에는 오데트와 지그프리트가 호수에 몸을 던져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만 소비에트 시기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혁명의 암울함 속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해피엔딩으로 각색되었다. 이후 각 발레단에 따라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의 결말도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 로트바르트만 처단되거나, 마법을 풀지 못한 오데트가 백조로 남기도 하며, 함께 죽음을 택한 오데트와 지그프리트가 승천하는 장면을 그리며 죽음 이후의 상상을 붙여넣기도 한다.

겨준 장치이다. 매튜 본은 프티파의 원작에 담긴 백조의 아름다운 이미지에서 탈피해 백조에 내재된 남성적인 강건함과 공격성에 주목한다.²⁹⁾ 안무에서 백조는 ‘동물(animal)’이자 ‘이단자(pagan)’로 규정된다. 히치콕의 영화 「새, *Birds*」에 담긴 공격성은 4막 백조 군무에 차용되어 힘과 위협이 집결된 형태로 묘사된다.³⁰⁾ 프티파는 흑조라는 역할을 통해 원형의 양면성을 드러내었던 반면, 매튜 본은 프티파 원작에선 가장 아름다운 아니마 상을 구현한 군무를 무자비한 폭력성과 연결시켜 원형의 이중적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려낸다. 왕자의 분신인 백조는 왕실의 억압과 사랑의 결핍을 해결하고 남성으로 재탄생시켜줄 이상과 자유의 상징이지만 현실이 아닌 환상으로 맺어진 관계는 폭력과 좌절이라는 비극이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 침실 장면과 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꿈은 보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무의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은 의식적 태도의 불충분한 점을 보여주거나 의식의 일방적 태도와는 반대의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의식을 교정해준다. 그러므로 꿈의 심층적 분석은 적절한 의식 태도를 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주관적 해석³¹⁾에서 꿈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꿈꾼 이의 마음에 존재하는 심리적 콤플렉스의 상징이다. 작품의 첫 장면에 나오는 꿈은 힘찬 날갯짓을 하는 강인한 백조이며, 작고 부드러운 백조 인형을 끼고 자는 유약한 왕자의 현실과는 상반된 이미지를 구현한다. 이는 왕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왕자의 사로잡힌 현실과 무의식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영원한 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고착된 왕자가 꿈속에서 만난 백조를 잊지 못하는 설정의 의미가 있다. 현실에서 가려진 오데트가 아닌 이상적인 남성 백조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왕자의 모습은 모성 콤플렉스의 영향으로 자신의 개인적 에로스는 아직 분화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어린이 원형의 한 종류인 ‘소년’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상징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영원한 소년은 내면적으로 풍부한 창의성과 감수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의식화하여 외부적으로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무책임한 현실 도피나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는 이러한 모성 원형과 결부된 영원한 소년의 위협성을 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개인에게서 의식적인 변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영원한 소녀(Puella Aeterna): 대런 아로노프스키의 「블랙 스완」

2010년 개봉된 영화 「블랙 스완」은 「백조의 호수」를 모티프로 한 심리스릴러물로 주인공 니나 역의 나탈리 포트만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영화는 원작 발레의 극적 핵심인 백조/흑조 이분법을 완벽히 연기하고자 하는 발레리나의 욕망과 분열된 심리를 섬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소녀와 여성의 간극을 넘나들며 일종의 통과의례를 떠올리게 하는 성장 서사와도 닮았다.

29) A. Tims(2013, October 14), *How we made Matthew Bourne's Swan Lak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tage/2013/oct/14/how-we-made-matthew-bourne-swan-lake>, 2019. 11. 20.>.

30) A. Macaulay(1999), pp.199-200.

31) 분석심리학에서 꿈은 무의식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자료라 여겼으며, 꿈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이라는 두 방향에서 접근한다. 객관적 해석은 꿈의 내용을 외부의 현실이나 의식의 상황에 비추어 보는 것이고, 주관적 해석은 꿈꾼 이의 내면적 요소가 지닌 의미를 확충하며 의식의 넓혀나가는 것이다. 융은 해석의 실제에서 경우에 따라 객관과 주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주관적 해석을 더 강조하였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프티파의 원작을 왕자와 백조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아니마 원형의 이중성에, 그리고 매튜 본의 작품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 모성 원형과 콤플렉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작품의 분석심리학적 이해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는 「블랙 스완」 속 주인공 니나를 부성 원형과 관련된 ‘영원한 소녀’ 원형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백조와 흑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니나의 모습에서 그림자의 인식과 통합이라는 과제를 읽을 수도 있지만, 니나를 통해 매튜 본 작품 속 ‘자라지 못한 아들’과 유사한 유형인 ‘자라지 못한 딸’의 모습을 논의하고자 한다.³²⁾ 이는 발레 작품의 주제나 내용보다는 현실 속 발레리나의 심리적 문제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영원한 소녀’가 어머니와의 관계, 즉 모성 원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면, ‘영원한 소녀’는 아버지와의 문제이며 부성 원형과 더불어 부성 원형이 작동하여 감정적 정감을 일으키는 부성 콤플렉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블랙 스완」에서 니나는 오직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할 뿐 아버지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현실 속 개인적인 아버지와 아버지 원형에 대한 개념의 혼란에서 나온다. 원형은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으로 선형적으로 주어진 가능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뒤에는 아버지의 원형이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의 비밀은 선재하는 원형에 있는 것이다.³³⁾ 부성 원형은 개인적인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만 아버지 뿐만 아니라 신, 왕, 태양 등 신화적 요소나 현대의 집단적 문화 속에서 또 다른 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를 통해 부성 원형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느껴온 아버지의 모습이나 느낌 같은 것이다. 모성 원리와 대조적으로 부성 원리는 이성의 영역으로 말씀과 권위로 나타나고 규범과 원리 등의 법칙을 만들고 실행하게 한다. 융 분석가 김계희는 부성 원리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자신의 딸에게 이상적인 가치관을 투사하며, 권위, 책임감, 결단력, 객관성, 명확성, 합리성, 질서, 규율과 법칙에 따른 훈육 등의 본보기를 제공한다. 아버지는 자연인으로서의 여성을 정신적, 문화적, 인간적 삶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기도 하며, 사회적 규범, 집단적인 가치관, 이론적 내용, 개념, 이념 등으로 경험된다. 또한 정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경험됨으로써 이런 경험은 여성을 지적 영역으로 인도하기도 한다.³⁴⁾

가부장적 문화라는 말처럼 현대사회에서는 문화권 자체가 부성적 성향을 띠기도 하며 이는 인간이 세상과 관계 맺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부성 원리를 담은 부성상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을 때 「블랙 스완」에서 니나는 실제 아버지는 부재하지만 아버지의 원리를 대치하는 것이 바로 강력한 발레 그 자체의 원리, 발레 교본, 혹은 발레 문화라 할 수 있다. 영화는 배역의 연기를 둘러싼 내면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더 큰 시각으로 볼 때 백조와 흑조 배역 자체가 지닌 고전적 정형성에 대한 집착, 극단적 1인 2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중압감, 완벽과 수직적 도약을 추구하는 발레의 집단적

32) 앞서 매튜 본의 작품 주인공이 익명의 ‘어린 왕자’라는 점에서 미성숙함을 유추해보았듯이 ‘니나(Nina)’라는 이름도 유사한 의미가 있다. 여자아이의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니나’는 스페인어 Niña와도 연관되는데, 이는 ‘소녀, 어린이, 어린 소녀, 증손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니나(Nina)’에서도 실제 성인의 나이인 주인공에게 어떤 성장과 관련된 문제가 얽혀 있음을 추측케 하는 부분이다.

Collins Dictionary, <<https://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english/nina>, 2019. 10. 24.>.

33) 박신, 김계희(2015), 『부성 콤플렉스: 분석심리학적 이해』(서울: 학지사), p.26.

34) 앞의 책, pp.71-72.

가치 등이 시종일관 주인공을 압도하며 분열로 이끌고 있다. 예술감독 토마스는 니나의 숨은 매력을 일깨워주는 조력자로 등장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호한 권위와 애정 어린 격려를 넘나드는 그의 ‘교묘한’ 태도는 출발점부터 수직관계 속 권력과 혼육의 상징으로도 읽히며 부재하는 니나의 아버지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다.

콤플렉스는 개인이 감정적이고 증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그 아래에는 원형이 존재한다. ‘영원한 소년’의 예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소녀’는 부성 원리에 사로잡힌 여성을 의미하며 부성 콤플렉스의 부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융 분석가 린다 시어스 레오너드(Linda Schierse Leonard)는 ‘영원한 소녀’를 4가지 다른 태도, 즉 ‘사랑스러운 인형(the darling doll)’,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소녀(the girl of glass)’, ‘높이 나는 자(the high flyer)’, 혹은 ‘여자 돈 후안(donna juana), 부적응자(the misfit)’로 분류한다.³⁵⁾ 영원한 소녀는 자연스러운 성장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과는 떨어져 자아가 취약한 상태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타인의 시각에서 빛어진 사랑스럽고 연약한 모습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규율과 교본에 따라 연약한 백조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소화할 수 있었던 니나는 발레의 부성적 원리에 압도당하는 캐릭터라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부각되어 모성적 측면과도 연관지어볼 수 있으나 이는 아버지의 부재를 보상하는 어머니의 과도한 아니무스라 할 수도 있다. 어머니와 연관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니나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엄한 어머니 상’ 역시 어머니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발레리나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한 니나 어머니 역시 그 엄격함의 근원이 발레의 부성적 원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영원한 소녀 원형을 통해 여성의 본성을 살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주인공이 그것을 깨뜨리는 시도들을 하면서 분열을 경험하는 모습을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침내 흑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쓰러지는 결말은 성공적인 통과 의례 혹은 자기실현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완벽했어!”라고 외치는 니나의 마지막 절규는 과연 주인공이 진정으로 부성 원리의 강박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의문을 남긴다.

V. 결론

본 연구는 「백조의 호수」에 담긴 원형과 상징의 의미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정신의 구조 및 개념과 원형 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백조의 호수」 제작 배경과 작품의 바탕이 된 민담의 원형적 성질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영상과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시대가 다른 세 가지 버전의 「백조의 호수」 속 상징에 담긴 주요 원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 번째, 19세기에 제작된 마리우스 프티파의 오리지널 「백조의 호수」는 왕자와 백조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기실현의 여정에서 만나야 하는 심층적 무의식, 즉 왕자의 내적 인격인 아니마 통합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백조와 왕자의 관계가 부각되는 프티파의 작품은 백조를 통해 남성의 여성성

35) L. S. Leonard(1982), *The Wounded Woman: Healing the Father-Daughter Relationship*(Athens: Swallow Press), pp.39-53.

즉, 아니마상의 이중적 측면을 그려내고 관계 맺음에 대한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개성화를 향한 인간의 험난한 여정을 그리고 있다.

두 번째, 20세기 제작된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는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축소된 왕자와 여왕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를 모성성과 모성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영원한 소녀’ 원형의 예로 살펴볼 수 있다. 아니마의 양면적 모습에 초점을 둔 오리지널과는 달리 매튜 본의 작품은 남성의 아니마가 어머니에게 고착되었을 때 일어나는 관계의 부조화와 성숙의 지연을 다루고 있다. 이때 남성 백조라는 환상적 설정은 백조 원형의 이중성인 동시에 어머니와의 아니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 삶을 사는 소녀의 무의식을 드러내게 하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세 번째, 21세기 제작된 대런 아로노프스키의 영화 「블랙 스완」은 완벽과 성공을 추구하는 발레 무용수 니나의 심리적 분열을 부성 원리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는 ‘영원한 소녀’ 원형의 예로 해석하였다. 백조가 지닌 창조적 영감으로서의 아니마와 파괴적 아니마의 성격은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설정되지만, 영화는 현실 속 인물을 통해 원형상의 재현을 둘러싼 심리적 갈등과 발레 문화에 대한 비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이 보여주는 소녀 원형상은 백조의 긍정적 아니마 상과 연결되는 동시에 발레리나 페르조나와의 동일시를 드러내며, 이는 정형화된 여성성의 문제와 성장으로 향한 과제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세 작품을 살펴본 결과, 시대를 초월하여 재생산되는 「백조의 호수」는 재탄생을 의미하는 처녀 원형상의 하나인 백조를 통해 여성성 혹은 아니마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때론 아니마 원형의 이중적 성격으로, 모성에만 머무르는 미숙한 아니마의 부정적 결과로, 부성 원리로 빚어진 여성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레리나 페르조나와의 분열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각 작품은 백조 원형이 지닌 다양한 정동적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심리학은 ‘경험심리학’ 혹은 ‘에로스의 심리학’이라고도 한다. 전자는 체험의 중요성을 의미하며 후자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융의 이론은 논리적이고 명확한 체계로 확립되었다기보단 인간 정신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는 현상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지적인 접근으로만 이해를 도모할 땐 모호하고 난해하게 다가오기에 경험적 통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술에서의 상징은 바로 이 정신적 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 있게 제공해주는 중요한 통로이다. 집단적 무의식의 상징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예술가는 시대의 요구와 아픔을 먼저 감지하고 함께하는 자기희생적 사람이다. 인류와 세대를 초월하는 원형의 속성을 춤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데 있어 각 작품은 시대의 목소리 또한 탁월하게 담아 관객에게 새로운 감상의 묘미를 제공하고 반향과 공감을 끌어낸다. 오리지널은 숭고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백조의 이미지를 통해 낭만발레에서는 부재했던 예술적 스펙터클을, 매튜 본은 익명의 왕실이라는 가상 집단에 남성 백조를 투입하여 20세기 영국 사회상을 풍자하고 젠더의 전복을 통해 근친과 동성애의 정감을 과감히 노출시켰으며, 대런 아로노프스키는 발레리나라는 페르조나를 쓰고 사는 현대 여성의 심리를 통해 클래식 발레가 지닌 여성 담론과 도그마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집단적 무의식과 원형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정신의 선천적인 구조와 심층의 역동을 일깨우고자 했던 융의 사상은 학문과 세대의 경계를 넘어 학자, 예술가,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왔다. 예술에 담긴 무의식의 상징은 물질주의와 합리적인 태도에 치우쳐 내면과 점점 멀어지는

현대인에게 자연치유적인 힘이 되어 영혼의 울림을 경험케 한다. 그리하여 보다 겸손하게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며 온전한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적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본 연구는 고전의 영속적 가치에 주목하여 세 버전의 작품이 빚어내는 주요 원형상을 비교해보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개별 작품 속에 담긴 정신 구조의 요소와 관계의 역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확충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박신, 김계희(2015). 『부성 콤플렉스: 분석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이부영(1998).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 _____ (1999). 『분석심리학의 탐구 1: 그림자』. 서울: 한길사.
- _____ (2001). 『분석심리학의 탐구 2: 아니마와 아니무스』. 서울: 한길사.
- Jung, C. G.(1984).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서울: 솔 출판사. 2002.
- _____ (1985). 『영웅과 어머니 원형』.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서울: 솔 출판사. 2006.
-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ARAS)(2010). *The Book of Symbols*. Cologne: Taschen.
- Beaumont, Cyril W.(2012). *The Ballet Called Swan Lake*. New York: Dance Books.
- Leonard, Linda Schierse(1982). *The Wounded Woman: Healing the Father-Daughter Relationship*. Athens: Swallow Press.
- Macaulay, Alastair(1999). *Matthew Bourne and His Adventures in Motion Pictures*. London and New York: Faber and Faber.
- Stevens, Anthony(2016). *Living Archetypes: The selected works of Anthony Stevens*. New York: Routledge.
- von Franz, Marie L.(1996).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revised edition)*. Boston and London: Shambhala.
- _____ (2000). *The Problem of the Puer Aeternus*. Toronto: Inner City Books.
- 강철중(2007). 남성의 모성 콤플렉스. 『심성연구』, 22(2): 79-151.
- 김성민(2017). 분석심리학과 문학: 예술에 대한 프로이드와 융의 태도 차이. 『신학과 실천』, 53: 217-254.
- 김운미, 황희정(2011). 춤의 정체성 논의와 실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1: 1-16.
- 김윤정(1993). Jung의 관점에서 본 Bausch의 예술세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나일화(2007). 융(C. G. Jung)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본 무용예술의 극적구조연구. 『무용예술학 연구』, 20: 119-144.
- 안나용(2009). 매튜 본 <백조의 호수>의 문화코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6: 107-143.
- 정의숙, 변혁(2011). 영화 속에서 춤이 갖는 몸 담론. 『무용예술학연구』, 32: 127-147.
- 조기숙, 한혜주(2009).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1: 278-294.
- 최은지, 이혜준(2016). 영화 <블랙 스완>의 예술적 담론 분석. 『한국무용학회지』, 16(1): 13-24.
- Decca(2007). *Swan Lake*. Mariinsky Ballet. London: Decca. (DVD, 128 minutes).
- Fox Searchlight Pictures(2011). *Black Swan*. Los Angeles: Fox Searchlight Pictures. (DVD, 108

Minutes).

NVC ARTS(1996). *Swan Lake*. Adventures in Motion Pictures. London: NVC ARTS. (DVD, 117 Minutes).

Collins Dictionary. <<https://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english/nina>, 2019. 10. 24.>.

Hiscock, John(2010, December 30). *Black Swan: Dancing on the edge of sanity*. The Telegraph, <<https://www.telegraph.co.uk/culture/film/filmmakersonfilm/8232025/Dancing-on-the-edge-of-sanity.html>, 2019. 10. 10.>.

Tims, Anna(2013, October 14). *How we made Matthew Bourne's Swan Lak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tage/2013/oct/14/how-we-made-matthew-bourne-swan-lake>, 2019. 11. 20.>.

논문투고일 2020. 2. 15.

심사일 2020. 2. 21.

심사완료일 2020. 3. 3.

A Jungian Perspective on the Symbols and Archetypes in *Swan Lake*

Roh, Youngjae

Researcher of IAC, Dong-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archetypes and symbols in *Swan Lake* from the perspective of C. G. Jung's analytical psychology. Though *Swan Lake* is a Russian classical ballet, renowned contemporary choreographers continue to reinterpret it, and the iconic image of the swan is frequently exploited in commercial advertisement, films and other forms of popular culture all over the world. By drawing attention to its diverse and repetitive socio-cultural applications, this study illuminates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archetypes by analyzing symbols in the three different versions of *Swan Lake*: Marius Petipa's *Swan Lake*, Matthew Bourne's *Swan Lake*, and Darren Aronofsky's film, *Black Swan*. As a result, Petipa's *Swan Lake* portrays the dual aspects of the anima in the process of man's self-actualization, and the other two deal with an eternal boy and girl archetype, representing the images of an adult who remains emotionally a child, often dependent on a mother or father.

Keywords: Analytical psychology(분석심리학), Carl Gustave Jung(칼 구스타프 융), *Swan Lake*(백조의 호수), Archetype(원형), Collective unconscious(집단적 무의식)